

유치원 비리 vs 고용 세습... 의제대결 치열

국감 종반전...민주 개혁 동력 사수·한국당 정부 심판 총력 이번주 지방 행정청·공공기관...여야 '포스트 국감' 고심도

종반전에 돌입하고 있는 국정감사에서 여야의 중간 성적표는 '막상막하'로 평가된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문재인정부 2년 차 개혁 드라이브의 동력을 지키는 데 주력했고,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정부 심판론 부각에 총력을 펼쳤다.

우선 민주당은 국감 초반 사립유치원 비리 문제를 성공적으로 의제화했다. '삼성 저격수'로도 평가받던 박용진 의원이 정부 위에서 교육위로 무대를 옮겨 국감 직전 사립유치원 비리 토론회를 개최한 것이 신화였다.

곧바로 폭발적인 학부모들의 반응과 국민 정서에 반하는 유치원 단체의 반발이 최대 이슈로 상승 작용을 일으켰다.

민주당은 홍영표 원내대표가 유치원 비리 재발방지 대책을 발표하겠다고 나서는 등 수세적 역할에서 벗어나 오히려 민생을 위한 개혁을 공세적으로 주문하는 반전을 이뤄냈다.

이해찬 대표는 국감 도중 민생연석회의를 출범시키고 당내 적폐청산위원회를 생활적폐청산위원회로 개칭, 유치원 비리를 아우르는 이른바 '생활적폐'와의 전쟁을 선포했다. 이는 문재인 정부의 평화 프로세스로 치우친 당정 지지율 기반의 무게 중심을 민생경제 보듬기로 보완하려는 전략이 깔린 것으로 해석된다. 민주당은 교육부와 당정협의를 통해 사립유치원 비리 근절 방안을 도출한 후 25일 공개하고, 24일에는 유류세 인하 등을 포함한 일자리

종합대책을 내놓을 계획이다.

한국당은 정부·여당의 실정을 파고들며 전방위적인 공세를 펼쳤다. 한국당은 남북이 지난달 체결한 군사분야합의서가 서해 북방한계선(NLL)을 무력화하고, 굳건한 한미동맹에 걸림돌이 된다는 주장을 적극 내세웠다.

문재인 정부의 높은 지지율이 상당 부분 남북 평화 무드에 기대고 있는 만큼 약한 고리를 집요하게 공격하는 한편 보수야당으로서 정체성을 확실하게 하는 효과를 노린 것이다. 한국당은 또한, 일부 민주당 의원 보좌관 출신이 피감기관에 취업한 것이 '낙하산 채용'이라고 비판한 데 이어 서울시 산하 서울교통공사 직원 10% 이상이 친인척 관계이며, 노조 간부 아들이 세습 고용되기도 했다고 폭로했다.

공공기관 채용비리와 고용세습 의혹은 일자리 부족이 심각한 상황에서 대중의 예민한 감수성을 자극할 만한 소재로, 이를

공론화한 것은 한국당이 이번 국감 들어 거둔 가장 큰 성과로 평가된다. 한국당은 서울교통공사와 같은 사례가 다른 기관에도 있는지 상임위별로 전수조사를 벌이고, 당 조직강화특위 차원에서 소속 의원들의 국감 실적을 점검할 방침이다.

제3당인 바른미래당 역시 정치 공세를 피하고 정책 국감을 지향했으나 의제를 주도하지는 못했다. 민주당평화당, 정의당 등 비교섭단체도 존재감을 드러내기는 역부족이었다.

이번 주 국감은 현장시찰이나 지방 행정청·공공기관 국감이 많아 별다른 추가 이슈 없이 막을 내릴 가능성도 제기된다. 국감 이후에는 내년도 예산안 심사, 정계특위를 중심으로 한 선거제도 개편 논의, 2차 북미정상회담 일정 조율 등 대형 이슈가 줄줄이 대거 나오고 있어 여야의 공방전은 계속될 전망이다.

김학실 광주시의회 교육문화위원장 자격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 비리 유치원 엄단·감시 강화 목소리가 전국적으로 빗발치는 가운데 광주시의회 교문위원장을 맡고 있는 김 의원의 부인이 사립유치원을 경영하고 있다는 사실이 확인되면서다.

21일 현재 김 위원장의 부인은 전북지역에서 유치원을 운영하고 있다. 김 위원장 부인이 경영하는 유치원은 국회 교육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이 최근 공개한 비리 유치원 명단에는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광주시의회 일각, 광주 일부 시민단체에서는 김 의원이 교문위원장을 유지하는 게 적절치 않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교문위가 시교육청 운영 전반을 감시하고 견인하는 상임위에서 감사 및 정책 결정, 예산 투입 등 유치원 관련 정책 전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다.

김 위원장의 부인이 경영하는 유치원이 광주가 아닌 전북에 있다는 점을 들어 '직접 관련성이 없다'는 반론도 있지

부인이 사립유치원 원장인데... 김학실 시의회 교문위원장 자격 논란

김학실 광주시의회 교육문화위원장 자격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 비리 유치원 엄단·감시 강화 목소리가 전국적으로 빗발치는 가운데 광주시의회 교문위원장을 맡고 있는 김 의원의 부인이 사립유치원을 경영하고 있다는 사실이 확인되면서다.

21일 현재 김 위원장의 부인은 전북지역에서 유치원을 운영하고 있다. 김 위원장 부인이 경영하는 유치원은 국회 교육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이 최근 공개한 비리 유치원 명단에는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광주시의회 일각, 광주 일부 시민단체에서는 김 의원이 교문위원장을 유지하는 게 적절치 않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교문위가 시교육청 운영 전반을 감시하고 견인하는 상임위에서 감사 및 정책 결정, 예산 투입 등 유치원 관련 정책 전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다.

김 위원장의 부인이 경영하는 유치원이 광주가 아닌 전북에 있다는 점을 들어 '직접 관련성이 없다'는 반론도 있지

만, '부인이 유치원을 경영하기 때문에 유치원 비리 문제를 소극적으로 또는 적당히 다룰 수 있다', '경우에 따라선 전북까지 영향력이 미치지 않았느냐'는 반대 의견도 있다.

동료 의원 A씨는 "상임위 배분 문제로 함께 이야기 나눌때 김 위원장 아내분 유치원 얘기가 나왔다. 교육 분야 경험에 있는 분도 아니었지만 아나운서를 하시며 문화 분야 경험을 쌓으셨다 유치원이 전북이어서 이렇다할 문제가 제기되지 않았다"면서 "그런데 유치원 비리 사태가 터지고 한유총(한국유치원총연합회) 대응이나 저희 시의회 움직임을 보니, 그때 저희 판단이 옳은 것만은 아닌 것 같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처음에(상임위원장 도전 당시) 저도 여러 생각을 했다. 동료 의원, 의장님과 아내 유치원을 두고 이야기를 나누는 것도 그런 것"이라며 "그러나 아내의 유치원은 전북에 있어 지역도 다르고 앞으로도 업무를 공정하게 할 자신이 있다"고 말했다. /김형호 기자 khh@

압수수색 소회 질문에 이재명 "인생무상 이죠"

국감 현장

안행위, 경기도 국감 형 강제입원 의혹 해명 조원진 "조폭문제 풀어야" 이재명 "사실 무근"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19일 오전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경기도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경기도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위원 질문에 답변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지난 19일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이재명 지사와 관련한 녹취록을 틀겠다고 예고한 대한에국당 조원진 의원(대구달서병)은 결국 녹취록 재생을 포기했다.

이날 조 의원의 질의시간에 앞서 이재근 위원장은 "국정감사 및 국정조사법"은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거나 계속 중인 재판 또는 수사 중인 사건의 소추(誹謗)에 관여할 목적으로 행사되어서는 아니 된다고 돼 있어 녹취 재생이 어렵다"고 말했다.

이에 조 의원은 "발언대에 놓고 틀면 된다. 녹취 재생에 알레르기 반응을 하지 마라. 법적 사안이 아니고 내 판단의 문제다"며 "틀 수 있는 방법이 많다. 국민정서상 어쩔지 고민하는 것이다"고 말했다지만 결국 녹취록을 틀지 않았다.

그러면서 조 의원은 "이 지사가 엄청난 압박을 받아서 안 됐다는 느낌도 있다. 탈당 권유받고 경찰 압수수색도 받았다. 소 회가 어때냐"며 오전 의사진행발언과는 전혀 다르게 이 지사를 감싸는 발언을 했다. 이에 이 지사가 "인생무상이죠"라고 답

하며 조 의원이 이 지사가 함께 크게 웃어 녹취록 재생에 촉각을 세웠던 국감장의 취재진 사이에서는 실소가 나오기도 했다.

조 의원은 "(녹취록과 관련된) 가족문제에 대해 얘기하지 않겠다. 알아서 잘 풀었으면 한다"며 "녹취록을 안 트는 것도(그런 이유다). 이 지사 상황 이해한다. 믿었던 사람도 등에 칼을 찌고 있다. 박근혜 전 대통령도 생각한다"고 말하기도 했다.

조 의원이 "조폭문제는 빨리 풀어야 한

다"고 하자 이 지사는 사실무근임을 강조하고 형님 정선병원 강제입원 의혹에 대해서는 "지자제왕으로서 법적 조치를 할 수 있었지만 안 했다"고 재차 부인했다.

김병준 대표 취임 100일 '무난' 한국당 계파 갈등 잠잠...새 대북관·인적 쇄신 '과제'

자유한국당의 혁신을 위해 나선 김병준 비상대책위원장이 오는 24일로 취임 100일을 맞는다.

그동안의 성적표는 일단 하루가 멀다 고 계파 갈등에 몸살을 앓던 당을 안정적으로 이끌고 있다는 점에서는 좋은 점수를 줄 수 있다는 평가가 나오지만 당 혁신의 핵심이라 할 인적 쇄신에서 성과를 내지 못했다. 특히 후한 점수를 받기 어려워 보인다는 지적도 있다.

지난 7월 비대위 출범을 전후로 한국당은 지방선거 패배의 책임 소재를 두고 친박(친박근혜)과 비박(비박근혜), 북당파와 잔류파, 친홍(친홍준표)과 반홍(반홍준표) 등으로 갈려 극심한 계파 간

김병준 대표 취임 100일 '무난'

한국당 계파 갈등 잠잠...새 대북관·인적 쇄신 '과제'

갈등을 노렸다.

이런 상황에서 김 위원장은 취임 일성으로 보수 가치 재정립을 들고 나왔다.

김 위원장은 또 비대위 산하 가치·좌표 재정립 소위, 정책·대안 정당 소위, 정당개혁 소위, 시스템·정치개혁 소위 등 4개 소위를 만들어 핵심정책 과제를 추려내기로 했다.

하지만 '김병준의 한국당'마저 한반도 비핵화와 탈냉전이 역사적 전환기를 맞은 현실을 외면한 채 대북 정책과, 평화 이슈에 관한 정치·외교노선에서 수구·냉전적 태도를 버리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도 계속 받고 있다.

/박지경 기자 jkpark@kwangju.co.kr

창당 6년 정의당 "2020년까지 제1 야당 목표"

정의당이 21일 창당 6주년을 맞았다. 고(故) 노회찬 전 의원의 빈자리가 아직도 큰 상태에서 치러진 이날 기념식에서 정의당은 2020년 제21대 총선에서 제1야당의 자리에 오르겠다는 목표를 밝혔다.

이정미 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이날 행사에서 "지난 6년간의 패배주의, 회의주의의 투쟁은 끝났다. 소수정당의 시대

를 끝내고 집권 가능한 정당의 시대로 나아가겠다"며 "2020년 꼭 제1야당으로 도약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21대 총선은 우리의 최종 목표가 아니다"라면서 "우리의 시선은 2022년을 향해있다. 정의당 창당 10년이 되는 그때, 지금보다 큰 모습으로 대선과 지방선거를 치를 것"이라고 역설했다. /박지경 기자 jkpark@

창당 6년 정의당 "2020년까지 제1 야당 목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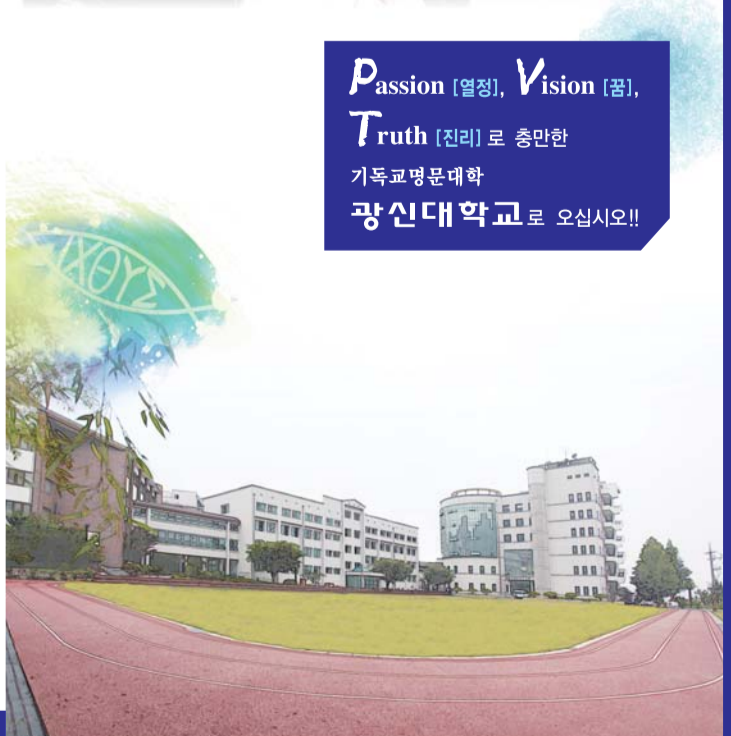
를 끝내고 집권 가능한 정당의 시대로 나아가겠다"며 "2020년 꼭 제1야당으로 도약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21대 총선은 우리의 최종 목표가 아니다"라면서 "우리의 시선은 2022년을 향해있다. 정의당 창당 10년이 되는 그때, 지금보다 큰 모습으로 대선과 지방선거를 치를 것"이라고 역설했다. /박지경 기자 jkpark@

2019학년도 광신대학교 학부/대학원 신입생 모집

사랑과 감사의 64년
1954~2018
믿음과 소망으로 100년



Passion [열정], Vision [꿈], Truth [진리] 로 충만한 기독교명문대학 광신대학교 로 오십시오!!



학부

▶모집학과 및 모집인원

*모집인원은 변동될 수 있음.

계열	모집단위	수시	정시
인문	신학과	30	16
	한국어교육학과	3	1
사범	유아교육과	8	2
	복지상담융합학부 (사회복지전공 / 교정행성교육상담학 전공)	31	3
예능	음악학부 (음악학 전공 / 실용음악학 전공)	23	7

* 신학과는 군중사관후보생(군중장교) 선발시험에 응시 가능. (합격시 학부 4년, 신학대학원 3년 입학금 및 등록금 전액 면제, 기숙사비 면제)
* 한국어교육학과는 한국어 교원자격증(2급)을 취득할 수 있음.
* 복지상담융합학부는 사회복지사, 보육교사, 건강가정사, 평생교육사, 상담심리지도사, 청소년상담사 자격 취득할 수 있음.
* 유아교육과는 유치원 정교사(2급), 보육교사 자격 취득할 수 있음.

▶원서접수 및 전형일정

수시모집 • 원서접수 : 2018. 9. 10(월) ~ 14(금) • 전형일 : 2018. 9. 28(금)

정시모집 • 원서접수 : 2018. 12. 29(토) ~ 2019. 1. 3(목) • 전형일 : 2019. 1. 10(목)

대학원

▶모집학과 및 모집인원

대학원	과정	모집학과	모집인원
신학대학원	석사	신학과(M.Div.)	65
		신학과(Ph.D.)	6
일반대학원	박사	목회학과(D.Min.)	2
		유아교육학과(D.Ed.)	5
		사회복지학과(D.S.W.)	5
		상담심리치료학과(D.C.S.)	5
		코칭심리학과(D.Psy.)	5
	석사	통합예술통계학과(D.C.S.)	15
		통합예술통계학과(D.C.S.)	10
		신학과(Th.M.)	25
		유아교육학과(M.Ed.)	8
		상담심리치료학과(M.A.)	15
상담치료대학원	석사	청소년상담지도학과(M.A.)	10
사회복지대학원	석사	사회복지학과(M.S.W.)	20
		평생교육학과(M.Ed.)	10
국제대학원	석사	한국어교육학과(M.Ed.)	20
		음악학과(M.A.)	6
음악대학원	석사	실용음악학과(M.A.)	6

▶원서접수 및 전형일정

• 추후 공지



61027 광주광역시 북구 양산백지사로 36

입학문의 ▶ 학부 062) 605-1114 / 대학원 062) 605-1115